

제 87 회

5月11日,

- … 본회가 주최한 第87 회 …○
- … 회 發明教室이 지난 …○
- … 5월 11일 發明장려관 …○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 每月 둘째 토요일 午 …○
- … 後 1時 30분에 開催 …○
- … 되는 發明教室은 이 …○
- … 달에도 1백여명이 參 …○
- … 席하여 盛況을 이루 …○
- … 었다. 이날 發明教室 …○
- … 에서는 한국제품연 …○



싸이크론 發明家

한국제품연구 金世英 사장

공과대학을 나오고 제품디자인 전공의 대학원까지 다닌 석학 金世英 사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민 등 모든 국민을 위한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90년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던 金사장은 같은 해 헝가리에서 열린 플로보디프 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했고 올해에도 그 전시회에 다시 출품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

어린시절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던 金사장은 금속공학을 전공하는 공과대학에 들어갔다.

차분하고 착실했던 金사장은 우연한 기회에 자동차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관심이 제품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대학원까지 마친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간 金사장은 평소에 원했던 자동차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디자인을 연구하면서 한가지 부족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내부 기능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부의 기능을 알아야만 외부 디자인이 좋게 나온다는 점을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金사장은 엔진을 비롯해 자동차를 구성하는 내부기관 모두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기판이 130km를 넘어서자 깨지는 듯한 소음이 들려서 급히 멈추었던 일이 발생했다.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몰았던 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에는 흡기 간섭, 배기 간섭 등으로 불충분한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흡기(배기) 간섭이라는 것은 첫번째의 실린더가 흡기(배기)했을때 그 옆의 실린더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엔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구 金世英 사장의 成 ○
- … 功 事例 發表에 이어 ○
- … 金嘉衡 本會 상근이 ○
- … 시의 「발명의 强추과 ○
- … 사업에 대한 강의와 ○
- … 洪數日 辯理士의 「 ○
- … 産業財産權制度」에 ○
- … 대한 강의와 토론이 ○
- … 있었다. 發明家의 成 ○
- … 功 事例를 간추려 紹 ○
- … 介한다. <柳泰未 記> ○



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소음 및 매연의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금사장은 그때부터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면 이 흡기(배기) 간섭을 없애고 완전연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7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결국 싸이크론이라는 발명품을 탄생시킨 금사장.

싸이크론의 원리는 간단했다. 엔진으로 공급되기 직전의 연료를 공기와 잘 혼합되도록 하고 다량의 공기를 유입시키기 위해 연료를 회전시키는 장치가 그것이다.

「첫번째 실린더가 닫히고 두번째 실린더가 열렸을 때 첫 번째 실린더 앞에 있던 연료가 두번째 실린더로 흘러들어 가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연료를 회전시켜주면 그러한 공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연료가 첫번째 실린더 앞에서

계속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완성품을 자신의 차에 직접 장착하고 고속도로를 달려본 금사장은 실험 결과에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고속으로 달렸을 때 들렸던 깨지는 듯한 소리도 없었고 매연이 33%나 감소되며 출력 향상, 연료 절약, 녹킹 감소, 동절기의 일발 시동, 차량고장 감소 등 수없이 많은 효과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자동차 공해가 심각한 요즘 금사장의 발명품은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특허(제 4962642호)부터 취득한 후 지난 4월에는 국내특허(제 41142호)로 등록을 받은 금사장.

「저는 다른 발명가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신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판가

름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명품도 사회조류나 유행에 민감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 사이크론은 지난번 중동전쟁 때에도 연료절약 차원에서 크게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죠.」

90년 4월부터 안양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약 1만대의 차량에 싸이크론을 장착시켰다는 금사장은 한번 장착하면 그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점점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한다.

90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금사장은 아직 홍보의 문제, 수출 계약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발명품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미소를 띠었다. <♣>